



[뉴스]
新외감법 도입
갈길 먼 회계개혁
02



Economy

코스피	2096.00 (0.00)	코스닥	690.65 (0.00)
금리 (국고채 3년)	1.98 (+0.04)	환율 (원-달러)	1121.60 (-16.50)(2일)

불황 속 이자수의 눈덩이, 사상최대 배당 예고

‘부채공화국’의 또 다른 그늘 은행, 외국인 주주만 배불려

(지분율 70%)

평균 배당수익률 4.3% 전망
금융위기 이후 사상최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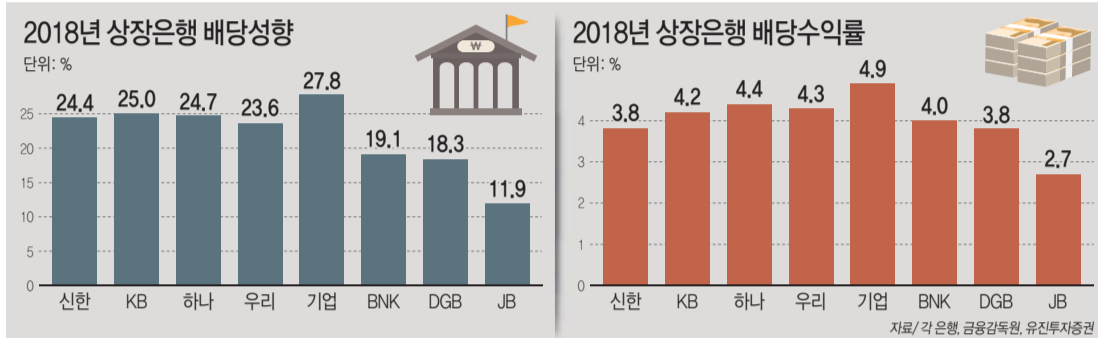
외국인지분 최대 70% 달해
그들만의 배당잔치 논란도

올해 1조7000억~2조원대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4대 시중은행 금융지주는 수 천 억원씩의 주주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배당잔치’가 유력하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분 구조를 보면 최대 70% 수준인 외국인주주가 최대 수혜 대상이어서다.

4일 4대 금융그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은행은 사상 최고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유안타증권은 상장은행의 2018년 역대 최대실적과 완만한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 비율) 상향 가능성을 감안해 4%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했다. 다만 자본적 정성 차이로 인해 시중은행 배당 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지방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8년 상장은행 평균 예상 배당성향은 21.8%였다.

시중은행 평균 배당성향 및 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25.1% 및



4.3%, 지방은행은 각각 16.4% 및 3.5%가 예상된다. 개별은행 가운데는 기업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가장 높은 27.8%의 배당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KB금융 25.0%, 하나금융 24.7%, 신한금융 24.4%, 우리은행 23.6% 등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은 BNK가 19.1%, DGB와 JB가 각각 18.3%, 11.9%의 배당 성향을 보일 전망이다.

KB금융 김기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에서 배당 성향과 관련해 “일본 은행이 저배당 기조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30%의 배당성향을 보이는데 좋은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급격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중장기로 30% 수준까지 넘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배당수익률 기준으로는 기업

은행이 4.9%로 가장 높을 전망이다. KB금융(4.2%), 하나금융(4.4%), 우리은행(4.3%) 등도 4%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인 BNK의 배당수익률도 4.0%에 달할 전망이다. DGB와 JB는 각각 3.8%, 2.7%에 이를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배당이 예상되면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배당금 대부분이 외국인 차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탓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의 외국인지분은 최대 70%대에 달한다.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하나금융 주식의 외국인 지분은 70.82%로 가장 높다. 이어 신한금융 68.82%, KB금융 69.70%이었다. 우리은행은 27.63%이다.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

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됐다.

배당되는 수익의 상당수는 가계에서 나왔다. 상반기 영업이익 실적에서 시중은행들은 이자이익에 치중해 있었고, 19조7000억원을 이자 장사로 벌어들였다. 평균 80%(이자이익 비중)가 이자수익인 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됐으며,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미디어 ‘제3회 뉴테크포럼’ 차원 다른 연결시대 5G가 열어 갈 세상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12월부터는 5G 방식의 전파도 쏘게 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5G는 일상생활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초정밀 위치추위시스템, 자율자동차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산업별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네트워크로봇 등 5G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군사적으로도 5G는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회 뉴테크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5G, 차원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09:00~11:50
-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 참가비 : 현장등록 5만원 (사전등록시 무료)
- 참가신청 : 제3회 뉴테크포럼 사무국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4D낸드’ 개발

세계 최초 ‘CTF’ 기반
칩 하나에 64GB 저장
연내 초도 양산 시작

SK하이닉스가 지난달 말 차세대 낸드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CTF 기반 4D낸드플래시’가 이름이다. 칩 하나에 64GB를 저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연내 초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4D낸드플래시는 세계 최초로 CTF(Charge Trap Flash) 구조에 PUC(Peri Under Cell)를 결합해 만들었다. CTF는 셀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국내외 낸드플래시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PUC는 페리회로를 셀영역 하부에 배치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다.

4D 낸드플래시 구조는 96단 512기가비트다. 72단 제품보다 칩 크기가 30% 이상 줄어들면서, 웨이퍼 당 비트 생산량도 1.5배 늘었다. 동시 처리 가능 데이터도 배 많은 64KB를 실현했다. 읽기와 쓰기 능력도 30% 가량 빠르다. 전력 효율도 150% 개선됐다.



SK하이닉스는 한차원 발전한 4D 낸드플래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연내 4D낸드로 개발한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출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될 UFS 3.0 제품에도 4D낸드로 구성키로 했다. 내년에는 1TB TLC와 QLC 출시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SK하이닉스 NAND마케팅 담당 상무는 “향후 개발 플랫폼이 될 CTF 기반 96단 4D 제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원가경쟁력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사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내 초도 양산을 시작하고, 향후 최근 준공한 M15에서도 본격 양산에 돌입해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차세대 128단 4D낸드플래시도 개발 중이다. /김재욱 기자 juk@

중소 자금조달 방식 ‘아직도 대출 위주’

주식·회사채 발행 1000곳 중 3곳 뿐

IBK경제연구원 ‘중소 금융 실태’
10곳 중 1곳 이상 은행도 거절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이유)

은행에 비해 대출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해서	은행 대출로는 부족하여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급전이 필요해서	기타
41.7%	24.1%	21.1%	21.0%	10.5%

지난해 주식이나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은 100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요건을 맞출 수 없다보니 오히려 사채를 이용하는 곳이 더 많았다.

은행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 10곳 중 한 곳이상은 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거절당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높았다.

4일 IBK경제연구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46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조달한 자금의 원천별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은행이

65.2%로 절대 비중을 차지했고 ▲정책자금 16.6% ▲비은행금융기관 9.4% ▲사채 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식·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0.9%에 불과했다.

업체 수 기준으로 주식 혹은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험에 있는 곳은 0.3%로 더 낮았다. 주식·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없는 이유로는 절반 가량인 49.8%가 ‘기업규모 등 발행요건 미충족’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21.8%다. 시중은행(66.8%), 특수은행(22.1%), 지방은행(15.0%) 등의 순이었으며, 신규대출 자금 사용

처는 ‘구매대금 지급’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2.9%다. 거절 사유(복수응답)는 ‘대출한도 초과’와 ‘담보부족’이 각각 55.1%, 50.0%로 많았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7.6%(업체 수 기준)가 신규로 받은 적이 있었다. 정책자금을 받은 이유는 ‘낮은 금리’가 75.9%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자금 평균 금리는 2.85%로 집계됐다.

은행과 정책자금의 수혜를 입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제2금융권과 사채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난해 3.8%의 중소기업(업체

수 기준)이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았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이유는 ‘은행에 비해 대출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가 41.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대출을 거절해서’(24.1%), ‘은행 대출로는 부족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21.1%), ‘급전이 필요해서’(21.0%) 등도 이유로 꼽았다.

사채를 이용한 중소기업은 2.2%(업체 수 기준)였다. 평균 사채 금리는 무려 13.29%에 달했다. 사채를 이용한 이유로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50.3%로 가장 많았다. /양상미 기자 smahn@